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 『청의보』·『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

이 혜 경**

[국문초록]

본고는 양계초가 계몽사상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청의보』(1898-1901)·『신민총보』(902-1907) 시기를 전후하여 사용한 '혁명' 개념이 어떻게 함의를 바꿔 가는지 추적했다. '입헌파'로서 양계초는 '혁명파'와 대립했지만, 근대어로서 번역어 '혁명'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었다. 초기에 그는 '혁명'을 '진화'와 동류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까지는 '혁명'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혁명파와의 대립을 통해, 그리고 1905년 러시아혁명이라는 현실의 혁명을 목도하면서, 혁명에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점차 정리해가면서 부정의 논리를 세운다. 그는 사회진화론을 국가경쟁력을 고양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사심을 제어하고 국가에 기여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는 체계로도 받아들였다. '혁명'에 대한 비판 역시 그가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틀에서 이루어진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주제어: 양계초, 혁명, 진화, 역성(易姓)

Liang Qichao, revolution, evolution, Yixing(易姓)

‘혁명’은 국내적으로는 국가에 헌신해야 할 사람들의 사적인 권력야망이며, 국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좀먹을 내란이라고 비판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사심에 의해 자행된 과거의 역성혁명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처리된다. 이처럼 진화로서 긍정되었던 ‘혁명’은 진화의 반동인 ‘야만적’ 정권 탈취로 부정되기에 이른다.

1. 문제제기

양계초(梁啓超, 1873-1929)와 ‘혁명’은 친연성이 높은 관계가 아니다. 1900년을 전후한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양계초는 강유위(康有爲, 1858-1927)와 함께 ‘보황당’(保皇黨) 혹은 ‘입헌파’를 대표하며, 그 ‘보황당’ 혹은 ‘입헌파’는 ‘혁명당’ 혹은 ‘혁명파’와 대비되어 그 의미가 도드라지는 명명이었다. 그들이 대립하던 시기의 ‘혁명’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당연히 ‘혁명파’와 그 기관지인 『민보』에 집중되었다.¹⁾ 그런데 양계초에 초점을 맞추면서 혁명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도 있다. 양계초와 혁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만에서 이루어졌으며, 혁명에 대한 양계초의 옹호를 조명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²⁾ 근대 계몽운동에서 전방위적인 역할을 했던 양계초는 실제로 번역어 ‘革命’³⁾, 즉 근대적인 의미의 ‘혁명’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기

1) 신해혁명을 중심에 두고 혁명을 다룬 연구서들은 많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민보』를 중심으로 다룬 朱滋源(1985), 『同盟會的革命理論』,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와, 『신민총보』와의 논쟁을 다룬 元冰峰(1980), 『清末革命與君憲的論爭』,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가 대표적이다.

2) 이 경향의 연구를 대표하는 것은 元冰峰(1980)과 張朋園(1979), 『梁啓超與清季革命』,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이다.

3) 이하 한자어 ‘革命’은 ‘혁명’ 즉 한글로 표기한다.

도 하다.⁴⁾

동아시아에서 한자어 ‘혁명’은 근대 시기에 ‘revolution’의 번역어로서 등장했다. 근대의 정치적인 의미에 한정하더라도 ‘revolution’은 다의적인 개념이다.⁵⁾ 그런데 그 한자어 ‘혁명’은 ‘revolution’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고전에도 등장하며 자체의 역사를 갖는 중국 고유의 개념이었다. 이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던 ‘revolution’이 한자문화권에 들어와 ‘혁명’으로 번역되면서, 한자가 갖고 있던 의미가 덧붙여져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⁶⁾

이런 사정도 가세해서 양계초가 처음 사용했다는 근대적 번역어 ‘혁명’ 개념은 넓은 외연을 가진 것이었다. 그 무엇보다 양계초의 ‘혁명’ 개념 사용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준 것은 사회진화론이다. 당시 여느 중국인처럼 양계초 역시 사회진화론을 변혁의 이론으로 받아들였고, 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서 ‘혁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가 처음 사용한 ‘혁명’은 ‘진화’만큼이나 긍정적인 것이었다. 양계초의

4) 陳建華(2000), 『革命的現代性－中國革命話語考論』, 上海: 古籍出版社, pp. 221-223.

5) “revolution”은 공학에서는 순환운동의 단위이고 정치학에서는 갑작스러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점성학과 관련해서 순환운동을 하는 행성이 중요 국면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동시대인들에게 ‘혁명’으로 불리기까지 혁명은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였다. 또 현대에는 사회공학적 인 은유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되었다. Peter Calvert(1990),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김동택 옮김(2002), 『혁명』, 서울: 도서출판이후 참조. Peter Calvert는 혁명들의 모델 연구를 통해 “혁명”은 최소한 다음의 네 측면을 갖는다고 정리한다. 1) 기존정부나 체제에서 이탈해서 적대하는 과정, 2)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확산시켜 정부를 전복하는 사건, 3) 기존체제를 지탱했다고 여겨지는 사회의 주요 공리를 변화시키겠다는 후속정부의 강령, 4) 이상적인 사태를 설명하는 정치적 신화. Peter Calvert (1990), pp. 18-21.

6) 金觀濤·劉青峰(2008), 『概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成』, 양일모 외 번역(2010), 『관념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pp. 470-479. 이 책은 고전어 ‘혁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역성혁명을 꼽고, 천도와 관련되어 도덕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혁명’의 특징으로 꼽았다.

‘혁명’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양계초가 일정한 시기 “민주공화”를 주장했다고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 연구들이 전거로 삼는 것은 대부분 양계초가 ‘진화’의 의미로 사용한 ‘혁명’이다.⁷⁾

‘혁명’이 구체적인 것으로 다가오면서, 넓은 외연을 가졌던 ‘혁명’ 개념은 점차 그 외연을 좁혀간다. 양계초 역시 지속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그 개념을 명료화해간다. 자신의 개념 사용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파장을 차단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revolution’에는 없었던, 중국의 고전어 ‘혁명’이 갖고 있던 대표적 의미는 왕조교체 즉 ‘역성’(易姓)이었다. 양계초는 근대어 ‘revolution’에 이 의미가 없으므로 ‘혁명’이 적절하지 않은 번역어라고 지적하며 ‘변혁’(變革)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혁명’은 이후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면서 정착되어 갔다. 당시 통용된 ‘혁명’은 이처럼 고전어의 의미에 대한 반성을 거치며 사용된 근대적인 개념이었지만, 그 실상을 보면, 양계초도 그 반대파도 고전어 ‘혁명’과 완전히 절연하지는 못한다. 즉 이 중국인들은 ‘혁명’에서 역성혁명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다. 이들의 근대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혁명’ 개념에서도 중국적인 특성은 제거되기 어려웠다.

본고는 양계초의 ‘혁명’ 개념이 어떻게 변주되고 어떻게 정착되어 가는지를, 계몽운동가로서 그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청의보』(淸議報, 1898-1901)·『신민총보』(新民叢報, 1902-1907) 시기를 전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또한 멀지 않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1905년 러시아혁명을 전후한 시기이기도 하다. 1905년은 러일전쟁과 겹쳐지는

7) 이 경향의 연구를 대표하는 것은 元冰峰(1980)과 張朋園(1979)이다. 실제로 양계초의 혁명지향을 증명해줄 문서는 남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편지글에서 파편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기빙봉이나 장봉원이 반청 ‘혁명’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하면서 전거로 들고 있는 것은 양계초의 1900년 말-1902년 사이의 글들로,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진화의 맥락에서 사용한 것이다. 본문 챕터2에서 논하는 한편, 기빙봉이나 장봉원의 오독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 지적했다.

시기로 1905년의 혁명과 전쟁은 동아시아 판세에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이었다.⁸⁾ 1905년 혁명은 전쟁에 가려져 그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조명되지 않은 혁명으로 남아있으나, 혁명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구폐의 전제국가로서 인지되었으며, 러시아혁명은 인민의 자각과 행동에 의해 전제정치의 청산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되었다. 러시아의 혁명은 같은 과제를 안고 미래를 개척해야 할 중국인에게 대단히 예민한 사건이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국의 애국지사들은 그 혁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노선을 분명히 해갔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개량파로서 양계초는 이 혁명과 다르지 않은 지향을 가졌음에도, ‘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다 더 분명하게 정리해간다. 러시아혁명은 ‘혁명’ 개념뿐 아니라, 이와 연동된 자유, 입헌, 민주 등 근대적 가치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모색을 추동하였다.

본고는 양계초가 사용하던 ‘혁명’ 개념의 의미가 부유하던 지점을 밝힘으로써, ‘혁명’에 대한 그의 입장이 형성되기까지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가적 전통을 가진 중국인이 ‘혁명’에 대해 품을 수 있는 찬반의 논리와 함께, 한편에서 이 논리 뒤에 서려있는 파토스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근대적 판도 편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면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러시아를 시야에 넣음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당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8) 동아시아 판도 변화의 전기로서 1905년과 러일전쟁을 다룬 책으로 山實信一(2005), 정재정 옮김(2010),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서울: 도서출판소화 참조.

2. 진화의 관문으로서 ‘혁명’

‘입헌파’와 ‘혁명파’ 모두 청일전쟁에 패배한 후에 결성된 단체로, 중국의 생존을 위해서 정체의 변경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공유했다. 1895년 2월, 손문(孫文, 1866-1925)은 하와이 흥중회(興中會)에 이어 홍콩에서 흥중회를 결성하고, 공화정부 창립의 전제로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는 기치를 내걸었다. 같은 해 8월 강유위와 양계초는 『만국공보』(萬國公報)를 발간하고 입헌정치로의 개혁을 선전하기 시작했다.⁹⁾ 혁명파는 ‘종족혁명’이 동반되어야만 ‘정치혁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입헌파는 광서제와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입헌군주제로의 이행을 도모했다. 그러나 한동안 ‘혁명’ 개념은 혁명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혁명’은 ‘체제 전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한편에서, ‘진화’와 동류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양계초의 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혁명’ 개념의 사용은 1898년 12월, 『청의보』 창간호에서이다. 양계초는 혁명파를 향해, 생존경쟁의 시대 외부 종족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만주족과 한족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¹⁰⁾ 나아가 민지(民智)가 열리지 않아 자유를 이해하는 백성이 적은 때이므로, 혁명을 해도 미국처럼 독립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부패가 따라올 것이라고 경고했다.¹¹⁾ 민주제로의 이행을 기도하는 ‘혁명파’를 상대로 이러한 설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은 중국의 ‘진화’를 위한 것이라는 목표는 공유한다고 판단해서였다. 혁명 역시 진화의

9) 두 파의 형성에 관해서는 亓冰峰(1980), pp. 9-17 참조.

10) 任公, 『청의보』(清議報) 제1책(1898.12.23), 『續變法通議·論變法必自平滿漢之界始』 pp. 7-12. 발간일자는 양력. 『변법통의』는 1896년부터 상해에서 발간된 『시무보』(時務報)에 연재되던 글이다. 『청의보』는 양계초가 일본에 망명하여 바로 발간하기 시작한 잡지로, 『續變法通議』라는 이름으로 계속하여 연재하였다. 任公은 양계초의 필명 가운데 하나.

11) 『청의보』 제2책(1899.01.02), 『續變法通議·論變法必自平滿漢之界始』, p. 68.

대 법칙 안에 있으므로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1899년 9월 『음빙실자유서·국권과 민권』¹²⁾에서는 프랑스혁명과 나란히 백인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권을 찾으려한 일본의 “유신”도 “혁명”으로 명명했다. 프랑스혁명과 일본의 유신은 각각 ‘민권’과 ‘국권’을 위해 자유권을 수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에서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의 예로 ‘혁명’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군주제를 청산하고 민주제로 이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혁명’을 사용한 듯도 하나, 여기서와 같은 ‘혁명’ 사용이라면 입헌파가 지향하는 개혁도 일본의 “유신”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혁명’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프랑스혁명이 나 일본의 유신은 자유권의 수호라는 ‘진화’의 행위이기 때문에 ‘혁명’으로 명명된 것이다.

그 열흘 뒤의 『자유서·강권에 대하여』¹³⁾에서는 자유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강권의 확대를 문명의 진보와 동일시한다. 그 전제 하에서 “종교혁명”, “정치혁명”, “경제혁명”, “여권혁명” 등이 모두 강권의 확대라고 설명된다. ‘혁명’이 정치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앞의 『국권과 민권』에서 국권과 민권을 같은 차원에서 ‘자유권’으로 다룬데 이어, 여기에서는 권리의 확대가 문명의 지표라고 하면서도, 자유권을 강권에 의해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자연권에 근거한 기본권으로서의 자유, 정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 등, 근대유럽에서 발원한 근대적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자유 이해라고 할 수 있다.

1901년 10월 『자유서·유신도설』¹⁴⁾에서는 정치적 변화를 위한 모든 운동을 ‘유신’이라는 말로 포괄한다. 운동의 주체, 이념, 추구하는 정체,

12) 『청의보』 제30책(1899.10.25), 『飲氷室自由書·國權與民權』, p. 5.

13) 『청의보』 제31책(1899.11.05), 『飲氷室自由書·論強權』, pp. 4-7.

14) 『청의보』 제93책(1901.10.03), 『飲氷室自由書·維新圖說』, pp. 1-2.

온건인가 급진인가 등에 따라, 혁명당, 근왕당, 군주입헌, 민주입헌 등이 나열되는데, 그 모든 것을 ‘유신’으로 포괄하고 있다. 이 글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心術)이 있다면 당파와 목적, 주의, 방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로 마무리된다. ‘유신’이라는 말은 역성혁명과 맥이 닿는 중국의 고전 용어이지만, 일본의 메이지유신 때문에 역시 근대적인 진보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1902년 『신민총보』(新民叢報)에 실린 「신민설 · 제7절 진취와 모험」에서는, 19세기에 시체가 언덕을 이루는데도 유럽에 혁명의 풍조가 퍼졌다고 소개하면서, 그것은 “백성이 나라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목숨을 바치면서 혁명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삶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상찬한다.¹⁵⁾ 그 한 달 뒤에 실린 「신민설 · 제9절 자유」에서는 자유는 “천하의 공리”이고, 구미 여러 나라가 근대 국가를 세운 “뿌리이고 원천”이라고 하면서, “혁명”이 그 “자유”를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소개한다. 그 관점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기운이 전 유럽을 진동시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입헌과 자치를 성취했다고 프랑스 혁명을 평가한다. 혁명은 “공공의 적을 향한 것으로 사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¹⁶⁾

앞에서 열거한 양계초의 ‘혁명’개념을 보면, 정체의 변화로 시작해서 급격한 변화라는 함의를 갖는 근대적 용어로 사용하면서도, 일정한 내포를 갖는 안정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유통하는 개념 사용으로부터 두 가지 특징은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혁명’을 사회진화론의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사용했다는 점이다. 양계초에게 사회의 진화는 ‘문명’의 성취와 직결되는 것이었고, 사회

15)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5호(1902.04.08), 『新民說五 · 第七節 論進取冒險』, pp. 1-11. 中國之新民은 양계초의 필명 가운데 하나. 『신민설』은 한국어번역본, 양계초 지음, 이해경 주해(2014), 『신민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참고.

16)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7호(1902.05.08), 『新民說七 · 第九節 論自由』, pp. 1-8.

진화는 우승열패의 법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유럽제국으로부터 영토 분할의 위협을 받고 있던 중국으로서 우승열패의 주체는 국가였고, 문명은 국민국가의 건설과 거의 동의어였다. 승리에 의한 진보, 그 과정에서 성취되는 문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했다. “문명의 진보”, “국민을 위하는 마음”, “공공의 적을 향한 것으로 사적인 이익 때문이 아닌 것” 등의 언설에서 그러한 양계초의 이해를 엿볼 수 있다. 민권과 국권이 자유권이라는 범주 안에 같이 묶였다는 것도 같은 배경을 갖는다.

양계초가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가졌던 관심 역시 민지, 자유, 진보, 혁명 등의 용어들로 설명된다. 1901년, 『청의보』 「자유서·러시아인의 자유사상」에서 미국이 공화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바뀌고, 러시아와 중국은 전제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바뀐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20세기의 세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국토가 넓고 인민이 겪는 고통의 수준이 비슷하고 군권이 강한 것도 비슷하다고 진단하고, “그러므로 오늘날 중국을 위해 일을 꾀하는데 러시아를 거울삼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 글은 러시아 혁명당원의 책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책을 양계초는 “러시아 국민의 ‘개혁’사상이 지난 5년간 급속히 진보”했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구체적으로는 황제에게 청원을 넣어 인민이 국사에 참여할 권한을 얻으려 한 것, 민지가 개발되면 전제정치는 저절로 전복되리라는 것, 교육을 받은 러시아 국민은 ‘혁명’정신이 활발하다는 것 등을 언급한다.¹⁷⁾ 황제의 존속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전제정치의 전복을 예상하는 표현으로 판단하면, 입헌군주제로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과 ‘혁명’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정체의 진화를 전제-공화-제국주의로 전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전제 다음의 단계를 ‘공화’가 아니라 ‘자유’로

17) 『청의보』 제96책(1901.11.01), 『飲水室自由書·俄人之自由思想』, pp. 1-4.

지칭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속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혁명’ 개념이 ‘진화’의 맥락에서 받아들여졌다는 특징 외에, 또 다른 특징은 양계초가 사회진화론을 단순히 객관적인 운동법칙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가치로도 받아들였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 문제는 그가 자유와 강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양계초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유’는 당위의 가치이지만, ‘강권’은 힘이 곧 진리라는 입장이다. ‘자유’가 ‘강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유는 강권에 종속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유라면 특권계층이 누려온 과거의 자유일 뿐, 근대의 ‘문명’으로서 ‘자유’는 아니다. 즉 그가 “천하의 공리”이자 “근대 국가”의 “뿌리”로서의 “자유”라고 한 것은 “강권”과 자연스럽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불협화음은 사회진화론의 성격, 나아가 근대문명 자체의 성격과 연동된 것이다. 문명은 인민 일반의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시켰다고 하지만, 양계초도 파악하고 있듯이 실제로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현실에서 성취한 자들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¹⁸⁾ 국민국가의 성취에 의한 인민의 해방은 외국의 식민지개척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고, 내국민의 자유 신장은 식민지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양립했다. 즉 문명의 성취에는, 보편적 가치추구라는 명분과, 실력에 의한 성취라는 현실이, 화해되지 못하고 병존하고 있었다. 문명으로 표상되는 근대적 가치들은 경쟁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고, 경쟁의 승자만이 그 가치들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양계초의 입장에서, 그 근대문명이 안고 있는 원천적인 모순에 대해 인지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8) 『飲水室自由書·論強權』에서 그는 “자유권을 얻고 싶으면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강권과 자유권의 본체는 분명 둘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에는 오직 상위자만 자유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위자도 자유권이 있다”와 같은 언설에 의해 이것이 문명시대의 자유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여전히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혁명을 문명을 향한 진보의 관문으로 보는 관점이 양계초의 혁명관에 일관된 것이라면, 그 문명의 양면성과 그에 대한 양계초의 의식되지 않은 혼란이 그의 혁명관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계초는 프랑스혁명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프랑스혁명은 전제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폭발한 혁명이다. 양계초의 표현에 의하면 자유에 대한 사랑이 폭발한 것이다.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프랑스혁명은 그대로 긍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계초에게 자유가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근대국가를 이룰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었다. 자유를 위한 투쟁도 국권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명쾌하게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민권과 국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권이 국권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화는 중국의 생존을 보장할 길이었기 때문에 가치였다. 혁명 또한 중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진화였기 때문에 가치였다. 그러나 양계초가 우승열패의 논리에 완전히 투신하여 ‘우월한 승자’ 되기만을 목표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강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는, 강한 국가를 만들 유능한 사람이라는 칭찬보다는,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 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心術)”¹⁹⁾뿐인 신실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더 원했을 것이다.

3. 폭력혁명과 거리두기—추구해야 할 개혁의 방식과 영역

앞 절에서 보았듯이 양계초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진화’와 연동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다. 정치영역 밖에서도, ‘종교혁명’, ‘경제혁명’, ‘여권혁명’¹⁹⁾ 등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시계

19) 『청의보』 제31책(1899.11.05), 『飲水室自由書·論強權』, p. 7.

혁명(詩界革命),²⁰⁾ ‘소설계혁명’²¹⁾ 등, ‘혁신적 변화’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폭넓게 사용했다. 그러나 곧 양계초는 ‘혁명’을 ‘폭력’, ‘유혈’과 연관 짓고, 그와 동시에 ‘혁명’을 자신의 정치노선에서 분명하게 배제한다.

1902년 7월 『신민설·제11절, 진보』에서 양계초는 ‘프랑스혁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지칭할 때는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한편, 일반명사 ‘혁명’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파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²²⁾ 그리고 “철과 피로써 단행하는” 파괴와 “머리와 혀로써 단행하는” 파괴, 즉 ‘유혈파괴’와 ‘무혈파괴’를 구별한다. 또한 무혈파괴와 유혈파괴를 각각 ‘의지적인 파괴’와 “자연적인 파괴”로도 구별했다. 의지적인 파괴인 무혈파괴에는 ‘건설’이 뒤를 이을 것이며 “진화의 움직임은 무궁히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을 보면, 이전까지 포괄적으로 혁명이라고 부른 것 가운데, 실제로 평가하고자 했던 ‘진화’로서의 변화를 ‘무혈파괴’라는 용어로 좁힌 것이다. 반면 ‘자연적인 파괴’, 즉 의지와 무관한 파괴로 분류된 유혈파괴에 대해서는, 연속되는 파괴만 있고 그 결과 백성의 고통과 내부

20) ‘시계혁명’이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1899년 말의 『夏威夷遊記』에서이다. 양계초 시계혁명의 구체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민정기(1993), 『晚淸 詩界革命과 梁啓超의 詩界革命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21) ‘소설계혁명’과 관련해서는 1902년 잡지 『新小説』의 발간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그 소설의 ‘문명적’ 효용성에 관해 논한 『論小説與群治之關係』가 그 창간호에 실렸다. 양계초의 소설계혁명에 대해서는 김태관·권혁권(2009), 『梁啓超의 “소설계혁명” 이론이 중국의 근대소설에 미친 영향분석』, 『中文學』 제32집. 참조

22) ‘파괴’는 『청의보』 제30책(1899.10.25) 『破壞主義』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여기에서 파괴주의는 진보의 동력으로 소개된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오쿠마 시게노부, 이노우에 카오루 등, 무사출신 메이지초기 정치가들의 정치운동 핵심이 파괴주의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 글에서 “오늘날 중국에 가장 적합한 것은 루소 선생의 민약론”이며, 루소는 18세기-19세기 초반, 유럽에서 효과. 일본 메이지5-16년에 효과가 있었고, 이제는 중국차레라고 루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元冰峰(1980)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양계초의 혁명고취의 근거로 제시하는데(pp. 68-69), 이때 양계초의 ‘혁명’은 일본의 ‘유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 개념이었다.

의 부패만이 있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명예혁명을 가리켜 영국이 “파괴를 꺼렸다면 이후의 영국이 18세기 말의 프랑스처럼 안 되었으리란 법이 없다”²³⁾고 말하는 데서, 프랑스혁명에 대해 가졌던 양가감정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험파괴는 주체도 없고 의도도 없고,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진화와 무관한 파괴라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후 약 5달 뒤인 1902년 12월에 양계초는 ‘혁명’의 번역 문제를 다룬다. 한자어 ‘혁명’에 들어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는 의도에서지만, 이를 통해 용어 나눠 쓰기에 대한 고심도 해결하고자 한다. 핵심은 ‘혁명’이 ‘revolution’의 번역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전어 ‘혁명’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즉 ‘revolution’은 “포악한” 전제정치를 청산하고 “인(仁)이 대신 들어앉는 문명을 향한 진화인 반면, 고대 중국의 ‘혁명’은 단지 “포악함이 포악함을 대신하는” “야만쟁탈시기”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계초는 “손익”, “점진”, “부분”의 특징을 가진 “reform”에 대해 ‘改革’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하고, “뿌리에서 뒤집어 별개의 신세계를 만드는 것”, “급격함”, “전체”의 특징을 가진 ‘revolution’에 대해서는 ‘變革’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한다.²⁴⁾

양계초가 적절한 번역어를 고심한 이유도 여전히 번역어 ‘혁명’에서 ‘진화’의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계초의 소망과는 달리 ‘혁명’이라는 번역어가 양계초가 제시하는 번역어 ‘변혁’에 밀려 도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추용(鄒容, 1885-1905)의 『혁명군』²⁵⁾이 혁명의 열기를 고조시키는가 했더니,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활동하던 혁명파가 손문을 중심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혁명’은 바야흐로 시대의 화두가

23)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10-11호(1902.06.20-07.05), 『新民說·第十一節 論進步』.

24)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22호(1902.12.14), 『釋革』, pp. 1-8.

25) 『혁명군』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태평양객 외 지음, 성근제 외 옮김(2011), 『20세기 초 반청 혁명운동 자료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되어 갔다.

‘정치혁명’과 ‘종족혁명’으로 구호화 되었던 혁명파의 방향은 1905년, 동맹회 발족과 함께 ‘민권, 민족, 민생’의 ‘삼민주의’로 정리된다. ‘정치혁명’과 ‘종족혁명’을 각각 ‘민권’과 ‘민족’으로 대신하고, ‘민생’을 새롭게 덧붙인 것이다. ‘민생’은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손문식의 해석으로 “사회혁명”으로도 명명된다.²⁶⁾

그런데 혁명파만 이렇게 개혁의 영역을 정비하면서 미래상을 구체화해 간 것이 아니었다. ‘혁명’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양계초는 더 이상 ‘혁명’ 개념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신민총보』 창간호의 발간취지에서 이미 중국의 “전도를 위해 오로지 국민의 공리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중국의 진보를 이끄는 것이 ‘점진’(漸)에 의한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교육을 주안으로 하고 정론은 부차로 한다는 점도 천명했다.²⁷⁾ 무혈과괴, 교육에 의한 점진적인 진보, 즉 ‘개혁’을 정치운동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진즉에 표방한 것이다. 군주입헌을 목표로 교육에 주력해서 점진적인 진보를 추구한다는 양계초의 ‘개혁’은 이미 1901년 6월 『과도시대론』에서 그 영역나누기의 단초를 보여줬다. 그는 최근 200년을 “과도기”로서 “변화”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변화해야 할 영역으로 ‘정치’, ‘학문’, ‘도덕’을 꼽았다.²⁸⁾ 실제로 양계초의 ‘점진적 개혁’ 노력은 이 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정치영역에서 양계초는 거의 흔들림 없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해왔다. 1901년 6월 『청의보』 「헌법 수립에 관한 논의」에서 세계의 정체를 군주전제, 군주입헌, 민주입헌으로 분류하고, “군주입헌이 정체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민주입헌에 대해서는 정치방략의 변화가 너무 쉽고 빠르다는 점, 대통령 선거의 경쟁이 너무 과열된다는 점

26) 孫文, 『민보』(民報) 제1호(1905.11.26), 『發刊詞』, pp. 7-9.

27) 『신민총보』 창간호(1902.02.08) 장정에 인쇄된 말.

28) 任公, 『청의보』 제83책(1901.06.26), 『過渡時代論』, pp. 1-4.

때문에 국가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²⁹⁾ 이는 민주입헌을 군주입헌의 다음 진화단계로 두는 입장이 아니다. 이 둘 사이의 단계 매기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은 보이지 않지만, 군주입헌을 민주입헌과 최소한 동급의 단계로 두는 것이다.

일찍부터 새로운 시, 새로운 소설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던 양계초는 『신민총보』 창간시기와 비슷하게 학술의 영역에서도 ‘개혁’을 시도했다. 유혈이든 무혈이든, 혁명이든 개혁이든 그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진화의 도정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시나 소설 역시 기본 개혁 방향은 양계초가 진화를 해석하고 진화의 방식을 판단하는 전체적인 역사관 안에 있다. 국가의 존립이 최대의 가치이고 국가존립은 우승열패의 매커니즘 속에서 판결난다. 소설이나 시의 가치도 진화에 이바지할 때 평가되는 것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양계초는 유럽의 학술사를 전범으로 두고 중국학술사를 정리하는 일에도 착수한다. 『신민총보』에 연재된 「중국 학술 사상 변천의 대세를 논함」이 그것이다. 중국 학술사에 반영된 문명진화사를 정리할 의도로 집필된 것이었다. 그러한 의도는 황종희(黃宗羲)나 왕부지(王夫之)를 “경세치용”뿐 아니라 “과학실험”의 특징으로 평가한다든지, 황종희를 루소에 비견하고 왕부지를 국민 평등을 주장한 인물로 평가한다든지 하는 서술에서 드러난다. ‘육망’을 긍정했던 대진(戴震)의 철학을 서양 근세의 “쾌락주의 철학”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역시 최종적인 평가는 ‘국가’이익에의 기여 여부로 판결된다. 혜동(惠棟), 대진으로 대표되는 청조의 고증학은 사람들의 정력을 소비하게 했을 뿐 “국가에 무익했다”는 판결을 받는다.³⁰⁾

29) 愛國者草議, 『청의보』 제81책, (1901.06.07), 『立憲法議』, pp. 1-5. 愛國者草議은 양계초의 필명 가운데 하나이다.

30)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는 『신민총보』 제3호(1902.03.10)부터 제58호(1904.12.7)까지 간헐적으로 연재되었다.

양계초가 개혁의 또 다른 영역으로 꼽은 “도덕”은 그가 가장 주력했던 과업이었다. 양계초는 중국의 진화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힘,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라고 판단했다. 소설의 효용을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글이 쉽기 때문에 계몽에 용이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계몽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도덕이었다. “한 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한 나라의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운을 뗀 양계초는 “도덕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³¹⁾ 직접적으로 ‘도덕’을 새롭게 하는 작업은, 소설보다는 어려웠을 『신민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양계초는 폭력과 유혈의 혁명 대신 도덕, 학문, 정치의 개혁으로 당면한 현실을 개척해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명목만 보면, 과거 유학자들이 세상을 경영하면서 중시하던 영역과 다르지 않다. 이것으로 과연 적자생존의 경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폭력혁명을 거부하는 양계초는 모든 폭력을 부정하는가? 중국을 넘보며 도발하는 외국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03년 『신민설』 『논사덕』³²⁾에서 양계초는 중국의 사덕이 타락했다고 평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누차에 걸친 전쟁의 패배로 인한 좌절”을 꼽는다. 그런데 그 “전쟁”은 다시 “본국내란”(本國內亂)과 “외국전쟁”(外國戰爭)으로 나뉜다. 그는 “내란”을 “가장 상스럽지 않은 것”으로 꼽으며 승패와 관계없이 민덕(民德)에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31) 『新小説』 제1호(1902.11.14), 『論小説與群治之關係』.

32) 『論私德』편은 세 번으로 나뉘어 연재되었다. 첫 부분은 1903년 10월 4일자 『신민총보』 제38·39합호에, ‘3. 사덕의 필요(三私德之必要)’부터는 제40·41합호(1903.11.02)에, 마지막 부분은 제46·47·48합호(1904.02.14)에 실렸다. 19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양계초는 미국에 머물렀으며, 실제 38·39호는 일본에 돌아온 후(1903년 12월 이후) 출간되었는데, 일자는 정해져있던 이전 일자로 찍힌 것이다. 실제로 제40·41합호는 1904년 2월에 출간되었고, 제46·47·48합호는 1904년 6월에 출간되었다. 李國俊(1986), 『梁啓超著述系年』,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p. 80 참조.

평한다. 그리고 그 “내란”의 예로 “프랑스혁명”을 꼽으며, 동족끼리의 살상으로 민기를 지나치게 손상하여 결국은 민주정치를 성취하는 것도 막아버렸다고 진단한다. 반면 외국과의 전쟁은 진 경우와 이긴 경우를 가른다. 전쟁에 지고 나아가 정복당하면 국민들 고유의 본성이 변하고 낙후하는 반면, 정복하는 나라가 되면 국민의 성격은 공명심, 적개심, 자각심 등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평가한다. 그에 의하면, “외부와의 전쟁을 통해 스스로 정복자가 되면, 전쟁을 한 번 할 때마다 민덕은 한층 높아진다.”³³⁾

진화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중국이 승자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는 일은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피부로 인지한 대로 정글의 세상이었다. 승자가 되기 이전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겨야 했다. 이것은 도덕이나 학문으로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기는 전쟁을 위해서는 내부의 단결이 필요했다. 양계초는 그 내부에서는 이전과 같은 세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내부 구성원의 도덕성에 의한 협력에 외부 전쟁에 이길 실력을 만들고자 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 “사적”이지 않은 마음 등으로 표현되는 그 ‘도덕’적 내부는 『신민총보』의 구상처럼 교육을 통해 도덕성의 함양에 의해 달성되리라 기대했다. 양계초가 유혈혁명을 거부하고 택한 개혁의 영역인 학술과 도덕, 그리고 정치의 길으로만 보면 과거 유학자들의 자기개혁 방식과 다르지 않다. 유학자들은 도덕과 학문이 정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자타의 실정(失政)은 부덕의 소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도덕성을 반성하거나 타인의 도덕성을 질책했다.

양계초의 구상은 내부는 과거처럼 개인은 도덕의 힘에 의지해 국가라는 단체에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뭉친 국가는 외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혁명은 내부의 헌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었고, 외부와의 전쟁, 특히 이기는 전쟁은 진화를 촉진하

33) 『신민총보』 제38·39합호(1903.10.04), 『新民說 第十七節 論私德』, p. 9.

는 것이었다. 강권을 추구해야 하는 현실과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의 동거는 국경을 경계로 하여 담당영역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착된다.

4. 러시아 혁명과 양계초의 ‘혁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혁명’개념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1903년과 1906년이다. 각각 추용이 『혁명군』을 발표한 해와 혁명파와 입헌파가 ‘혁명’을 둘러싸고 논전을 시작한 해이다.³⁴⁾

『혁명군』이 등장한 데는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만주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일전쟁 뒤 ‘3국 간섭’을 통해 여순과 대련을 조차한 바 있던 러시아는 1900년 의화단 진압을 명분으로 북경에 진입한 8개국의 연합군에도 끼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만주의 주요한 지역을 점령했고, 만주에 출병한 1900년 7월, 블라디보스크에 재류하는 청인 3천명을 학살해서 아무르강에 매장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발단이 되어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러시아 배척운동 단체가 조직된다.³⁵⁾

청 정부는 이 거아운동의 반제운동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탄압하려 하였다. 이에 혁명파 잡지 『강소』(江蘇)는 만주정부를 향해 “혁명을 면할 수 없다”고 격분한다.³⁶⁾ 그런데 같은 『강소』 제4호에는 “러시아허무당”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도 함께 실렸다. “19세기 이

34) 金觀濤·劉青峰(2008), 양일모 외 번역(2010), pp. 482-485.

35) 拒俄運動에 관해서는 楊天石·王學庄 편(1979), 『拒俄運動: 1901-1905』,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참조.

36) 愛讀, 『江蘇』 제4기(1903.06.25), 『革命其可免乎』.

래 세계대국은 입헌 혹은 공화가 되었는데, 구태의연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뿐”이라고 세계정세를 판단하고, “러시아허무당은 불요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4억 인민도 그들을 본받아 자유를 구하는 혁명을 해야 한다”고 그 혁명정신에 공감했다.³⁷⁾ 청정부를 무너뜨리고 공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 혁명파는 이처럼 러시아정권과 그 정권을 전복하려는 혁명주체를 나눠서 생각했다. 각각에 만주정부와 자신들을 대입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01년 4월 양계초의 『청의보』 역시 만주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러시아를 경계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청정부가 부패하고 무력하다고 열강에 의지할 수는 없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므로 인민의 여론에 따라야 하지만, ‘인민은 아직 식견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³⁸⁾ 1902년 6월 『신민총보』에 미서명으로 실린 「혁명! 러시아혁명!」이라는 기사는 러시아 혁명의 임박을 예상했다. 이 기사는 “10년 이내 러시아가 혁명과 입헌 둘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³⁹⁾ 갈 것이라고, ‘혁명’이라는 말을 ‘입헌’과 대비적으로 사용했다.

1903년 11월, 양계초는 ‘러시아 허무당’에 관한 논설을 싣는다.⁴⁰⁾ 『혁명군』 출간 이후 중국 혁명파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때였다. 양계초는 러시아혁명당의 존재는 혁명주의가 실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혁명’의 수단은 ‘폭동’이고 ‘허무당’의 수단은 ‘암살’이라고 배당한다. 러시아에서 ‘폭동’ 즉 혁명이 실행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폭동’에 동조하는 인민이 소수라는 점, ‘폭동’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점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폭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결론짓는다. 혁명이 ‘폭동’으로 격하되는 한편, 혁명

37) 韓孫, 『江蘇』 제4기(1903.06.25), 『露西亞虛無黨』.

38) 『청의보』 제75책-77책(1901.04.05-04.29), 『對俄策(就滿洲問題)』.

39) 『신민총보』 제9호(1902.06.06), 『革命! 俄羅斯革命!』.

40)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40·41합호(1903.11.02), 『論俄羅斯虛無黨』.

세력이 동조자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암살이라는 궁색한 방법을 선택하고 허무당이 되었다는, 허무당과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인색한 평가였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신민총보』는 바로 「러일전쟁의 장래」라는 글을 신는다.⁴¹⁾ 전제국가인 러시아는 “문명의 공적”이라고 운을 떼고, 입헌국가인 일본의 백성(民黨)은 전쟁을 지지하는데, 러시아는 백성마저도 전쟁을 비난한다고 전한다. 특히 중국을 일본과 함께 ‘동아민족주의’의 운명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일본이 “야만의 러시아”와 싸우는 러일전쟁은 “동아민족주의”⁴²⁾의 발달을 촉진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러일전쟁을 효시로 하여 일본과 연합하여 “함께 말을 달려 유럽대륙을 밟을” 꿈까지 꾀다.⁴³⁾

혁명파 측이 타도의 대상으로서 러시아 전제정부와 공감의 대상으로서 러시아 혁명세력을 나누어 보았다면, 양계초 측은 러시아 전제정부는 배척하면서 그 혁명세력도 과소평가 내지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혁명의 주체가 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나 러시아에 대해서나 마찬가지였다. 중국인민에 대해서는 “아직 식견이 부족”하다고 정치주체의 자격을 유보하고, 러시아 인민에 대해서는 그들이 “폭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평한다. 나아가 『신민총보』는 “러시아인은 애국심이 없다”고 호도한다. 전쟁을 맞이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가를 위하는 일본인과는 달리, 러시아인은 애국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의 국민의 정(情)” 즉 애국심이 전쟁의 승패를

41) 主父, 『신민총보』 제44·45합호(1904.01.01), 「日俄戰爭之將來」.

42) 러일전쟁을 황인종과 백인종의 인종대립으로 보는 것은 백색인종이 만들어낸 황색인종위협론 즉 ‘황화론’(黃禍論)이 시발이다.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열세임을 자각하고 있던 일본은 황화론이 자신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음을 알고, 러일전쟁은 인종전쟁이 아님을 유럽을 향해 선전했다. 山實信—(2005), 정재정 옮김(2010), p. 84 참조. 일본이 경계했던 황화론이 중국 측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중국인은 일본의 약진에서 황인종의 밝은 미래를 보고자 했다.

43) 主父, 『신민총보』 제44·45합호(1904.01.01), 「日俄戰爭之將來」.

같았다고 말한다.⁴⁴⁾ 국가의 부강이 진화의 지표이고, 국가의 부강은 국민 개개인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보는 양계초의 입장에서, 국가 부강의 원천이 될 국민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도덕심이고, 그 도덕심의 실상은 애국심이다. 그 시각에서 보면, 애국심이 없다는 것은 문명적이지 않다는 의미와 동의어였다.

그러나 하면 『신민총보』 제58호(1904.12.07)의 「러시아 입헌정치의 동기」는 완강한 러시아가 “자유신의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러시아 국정의 변동이 임박했음을 알리고,⁴⁵⁾ 제59호 「아아! 러시아의 입헌문제」에서는 “러시아 정치의 혁신은 … 전쟁 후에는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러시아 국민(國民黨)의 전도에 밀려드는 희망을 품는다”고 말한다. 러시아에서 혁명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자신의 예측이 빛나 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애국심 없는 러시아인”에서 “러시아 국민의 전도에 밀려드는 희망”으로 자세를 바꾼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의 전도에 밀려드는 희망”을 품었다는 양계초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듯하다. 양계초는 서둘러 러시아가 혁명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를 찾는다. 그 목적은 중국은 러시아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중국에는 혁명이 필요 없다는, 혁명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다. 1905년 1월, 「러시아혁명의 영향」에서 그는 그 대답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은 귀족이 전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제상의 불평등, 그리스정교만을 인정하는 종교상의 불평등, 슬라브 민족만을 우대하는 민족상의 불평등, 이와 같은 계급적, 종교적, 민족적 불평등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치상의 불평등 때문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한다.⁴⁶⁾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한 데는, 혁명의 일반적 발발 이

44) 『신민총보』 제44·45합호(1904.01.01), 「俄人之無愛國心」.

45) 飮水, 『신민총보』 제58호(1904.12.07), 「俄國立憲政治之動機」.

46)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61호(1905.01.20), 「俄羅斯革命之影響」.

유에 대한 양계초의 선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다. 1902년 시점에서 양계초는 유럽의 진화한 문명의 원동력을 자유라고 찬양하고, 그 자유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여섯으로 가르른 적이 있다. 즉 사민(四民)평등의 문제, 참정권의 문제, 속지(屬地: 식민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민족건국의 문제, 노동계의 문제이다. 이 가운데 양계초는 현재 중국의 문제는 참정의 문제와 민족의 건국문제 밖에 없으며, 이 두 가지 문제도 하나를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올 성격의 것으로 근원이 같은 문제라고 정리한다.⁴⁷⁾ 이 하나의 문제는 바로 혁명과 맞서 양계초가 유일하게 동의하고 있던 ‘정치혁명’의 문제였다. 러시아에는 혁명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듯이, 중국은 ‘정치혁명’만 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1905년 2월, 『신민총보』 제62호에서 양계초는 러시아혁명이 성공을 기약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을 전한다. “종교적, 지적, 경제적이라는 삼종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따른 후 추세가 완비되어야 무혈혁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전달하면서, 톨스토이가 자국의 일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백성(民黨)의 세력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덧붙인다.⁴⁸⁾ 양계초는 이 혁명이 성공하더라도 러시아 국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러시아 소란의 동기는 정치문제가 열 가운데 셋이고, 경제문제가 일곱이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일파인 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은 ‘토지사유권’ 철폐를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다. 톨스토이가 그 노련

47)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7호(1902.05.08), 『新民說七·第九節 論自由』. 중국은 전국시대 이래 세습의 벼슬제도가 폐지되어 사민평등의 문제 즉 계급문제가 없으며, 국경 밖 식민지가 없으므로 속지의 문제도 없고, 중국은 종교국가 아니므로 신앙의 문제도 없다고 한다. 노동계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아직 닥치지 않은 문제라고 정리한다. 『신민총보』 제7호. 1902.05.08.

48)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62호(1905.01.20), 『俄羅斯革命之影響』.

함과 신중함에도 이 주의를 주장하니 그 세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러시아가 갑자기 전제를 바꿔 공화를 이룩한다면, 지금 정부를 대신 할 자들은 극단의 사회주의일 것이고 그들이 꿈꿨던 것을 시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사유권을 폐지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능한가? 러시아 입국의 기초를 흔드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혁명처럼 절대적 반동력을 부를 것이다. 정부가 그처럼 과격한 길을 간다면 난(亂)과 마찬가지로이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위험하고 러시아는 지금보다 몇 십 배 위험해질 것이다.⁴⁹⁾

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여기에 이르러 그 정점을 찍는다. 혁명의 욕망은 정치혁명과 종족혁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혁명에까지 나아간 것이다. 혁명에 대한 양계초의 위와 같은 패닉은 곧 중국을 향한 것이 된다. 바로 중국의 혁명파가 민권, 민족, 민생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러한 주장은 양계초의 눈에 ‘소란’이고 ‘난’일 뿐이었다. 훗날 혁명파가 중국 혁명의 역사를 농민혁명의 역사로 엮었다면, 양계초의 눈에 그것은 농민반란의 역사일 뿐이리라. 러시아혁명이 보여준 교훈은 혁명은 어떤 긍정적인 미래도 상상할 수 없게 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제군주를 극복해야 한다는, 중국과 같은 과제를 안고 출발했던 러시아의 개혁 방식은 양계초에게는 살아있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양계초는 곧 있을 『민보』와의 결전에서 자신이 취할 스탠스와 공격의 논리를 러시아혁명을 보며 이미 정리하고 있었다.

5. 고전어 ‘혁명’의 잔영-중국적 ‘혁명’

양계초와 혁명파가 교류하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강유위는 양계

49)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62호(1905.01.20), 『俄羅斯革命之影響』, pp. 50-51.

초를 미국으로 출장 보냈다고 한다. 양계초가 어느 정도까지 혁명파에 경도되어 있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⁵⁰⁾ 『민보』도 양계초가 일본에 와서 손문과 교류하면서 이전의 생각에서 벗어나 ‘파괴’에 대해 고려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⁵¹⁾ 양계초 역시 1903년 3월 밴쿠버에서 서군면(徐君勉)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이 혁명 외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진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연설할 때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⁵²⁾ 전제군주제를 벗어날 방법은 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미국여행 후에는 그러한 흔들림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양계초는 이른 시기부터 ‘입헌군주’를 현재 중국에 최선의 정체라고 생각했으며, 폭력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다만 기본적으로 ‘혁명’도 진화의 방법이라고 인정했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心術)이 있다면 당파와 목적, 주의, 방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⁵³⁾고 생각했으므로, 혁명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보되었던 비난도 ‘소보사건’(蘇報案)⁵⁴⁾을 계기로 터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03년 추용의 『혁명군』은 장병린의 서문과 함께 『소보』(蘇報)에 실렸다.⁵⁵⁾ 이 글이 촉발한 반청반만의 고조는 청조의 언론탄압

50) 張朋園(1979)은 양계초가 일정시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서술하는데(pp. 81-104), 그 주요전거로 들고 있는 것은 서태후 정부를 향한 비판이며, 직접적으로 체제전복을 위한 유혈혁명을 주장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51) 辨姦, 『민보』 제5호(1906.06.26), 『斥新農叢報之謬妄』.

52) 丁文江·趙豐田(1983), 『梁啓超年譜長篇』, 上海: 人民出版社, p. 320.

53) 『청의보』 제93책(1901.10.03), 『飲氷室自由書·維新圖說』.

54) 1903년 5월, 장병린과 추용 등이 상해조계당국에 체포되어, 장병린은 3년형, 추용은 2년형의 판결을 받았고, 추용은 옥사한다. 소보사건에 대해서는 周佳榮(1979), 『蘇報與清末政治思潮』, 香港: 昭明出版社.

55) 章炳麟, 『蘇報』(1903.06.10), 『革命軍序』.

을 유발했고, 장병린(章炳麟, 1869-1936)과 추용은 투옥된다. 옥중에서 장병린은 추용과 자신이 체포된 것이 『소보』를 함께 만들던 오치휘(吳稚暉, 1865-1953)의 밑고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양계초는 장병린의 비난에 호응해, “중국은 완고보수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당(新黨)에 의해 망할 것”⁵⁶⁾이라고, 혁명당에 대한 비난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다.

이 사건 이후 혁명파에 대한 양계초의 노골적인 비난은 이어진다. 그가 혁명파를 비난하는 근본 입지는 국가의 부강을 최고의 가치이자 최상의 진화로 설정한, 일관된 것이었다. 『신민총보』 「신민설·제18절 사덕」 편에서 그는 “혁명”과 “일체파괴”를 호환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체파괴”라는 구호가 “사회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⁵⁷⁾ “나라는 끝내 막가파의 혁명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망하는 속도를 재촉할 뿐”⁵⁸⁾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지금까지 혁명파에 대한 비난을 유보했던 입장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心術)”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보사건을 계기로 양계초는 혁명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비난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양계초는 오치휘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혁명파의 도덕성이 국가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방식의 비난을 시작했다. 그 비난에는, 혁명파가 구사하는 전술의 성격이 도덕과 양립하지 못한다는 논리적인 비판도 있었지만,⁵⁹⁾ 더 치명적인 비난은 혁명파가 주장하는 혁명의 근대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성격이란 진화로서의 혁명이고 국민을 위

56) 『致蔣觀雲先生書』(1903.06.27), 丁文江·趙豐田(1983), p. 328.

57)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40·41합호(1903.11.02), 『論私德』, p. 3.

58)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40·41합호(1903.11.02), 『論私德』, p. 6.

59)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40·41합호(1903.11.02), 『論私德』, pp. 8-10. 여기에서 양계초는 혁명이 근원적으로 도덕과 양립할 수 없음을 논한다. 물리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 파괴주의는 이기기 위해 갖은 전략전술을 동원해야 하므로 “파괴주의자라는 입장의 성질은 도덕과 가장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는 혁명이다. 1904년 2월에 양계초가 발표한 「중국역사상 혁명에 대한 연구」⁶⁰⁾라는 글은 이후 창간될 『민보』의 격렬한 반격을 부르면서 1년여에 걸친 논쟁을 초래했다. 이 글에서 양계초는 근대 중국 언론의 큰 주제였던 “혁명론”의 이론적 논거를 구하고 그 실행의 인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역사상 혁명을 연구하겠다고 그 의도를 밝힌다. 그러나 혁명파가 예민하게 반응했듯이, 그 글의 진정한 의도는 당대의 혁명파를 중국의 역사적인 혁명들, 즉 앞에서 양계초가 정리했듯이 “포악함이 포악함을 대신”했다는, 과거의 야만적 혁명과 같은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였다. 양계초는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혁명의 뜻에는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다. 가장 광의는 사회상 모든 무형, 유형의 사물에 생기는 대변동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광의는 정치상으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평화로 얻든지 철혈로 얻든지를 막론하고, 이전과 획을 긋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협의로는 오로지 병력으로 중앙정부를 향하는 것이다. 우리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오로지 협의의 혁명만 있었다. 지금 극단적 혁명론만을 끼고 협의의 혁명에만 심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구하는 것도 이 협의의 혁명이다.⁶¹⁾

혁명은 진화의 관문이라는 혁명에 대한 초기의 생각은 ‘광의의 혁명’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1902년 「석혁」에서 양계초가 야만의 정권쟁탈일 뿐이라고 폄하했던 과거의 혁명들은 “협의의 혁명”으로 명명되는데, 문제는 “지금 극단적 혁명론에만 심취해” 있는 당대를 포함해 “중국에는 수천 년 동안 오로지 협의의 혁명만 있었다”는 언명이다. 자신의 정적인 혁명파를 저격하는 글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이어서 양계초는 서양혁명사와 비교해서 중국혁명사의 특징을 나열했는데, 문명적인 혁명과 야만

60)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46-48합호(1904.02.14), 「中國歷史上革命之研究」.

61)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46-48합호(1904.02.14), 「中國歷史上革命之研究」, p. 115.

적인 혁명의 구분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서양의 혁명이 단체가 주동이 된다면 중국의 혁명은 사적인 개인들에 의하며, 서양의 혁명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어난다면 중국의 혁명은 사적인 야심을 위한 것이며, 서양의 혁명이 중등사회가 주동이 된다면 중국의 혁명은 상등사회와 하등사회에 의한 것만 있다⁶²⁾는 것이 그 대략이다. 지금 양계초의 눈앞에 있는 혁명파는 도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권 탈취라는 사적인 욕심 때문에 폭력을 동원하는 것뿐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 같은 것은 없는, 사심 가득한 야만의 욕망일 뿐이라는 것이다.

1905년 11월에 창간된 『민보』는 그 창간호부터 매호 줄기차게 양계초를 비판했다. 양계초와 『민보』의 대립점은 명확했다.⁶³⁾ 양계초의 입장은 ‘민권, 민족, 민생’ 가운데 ‘민권’ 즉 ‘정치혁명’에만 동의하는 것이었다. 양계초의 입장은 만주라고 하더라도 서태후를 비롯한 구태와 광서제와 같은 개혁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고, 광서제와 같이 자발적으로 민권을 신장해주려는 사람을 배척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었다. ‘민생’은 손문이 말하듯이 20세기의 이념이었다. 이는 물질적인 발전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손문은 물질적인 발전을 경험하기 전의 중국은 “민생주의 연구의 최선단이며 사회문제의 해독이 아직 없을 때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동시에 실행”하자고 주장했다.⁶⁴⁾ 종족혁명과 정치혁명이라는 묵은 숙제 위에 ‘사회혁명’이라는 새로운 숙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맞선 양계초는 1906년부터 ‘입헌군주’에서도 후퇴해 ‘개명전제’를 주장한다. 양계초가 당당하게 개명전제로 돌아선 것에는 혁명당의 ‘민생주의’ 즉 ‘사회혁명’이 큰 역할을 했다. 그에게 모든 가치 판단

62) 상등사회에 의한 혁명은 정권탈취를 위한 역성혁명을, 하등사회에 의한 혁명은 농민반란과 같은 민중봉기를 지칭한다.

63) 이에 대해서는 기빙봉(1980), pp. 178-208 참조.

64) 孫文, 『민보』 제1호(1905.11.26), 『發刊詞』.

의 기준은 국가의 부강과 그 부강한 국가가 보장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이다. 그렇다고 하면 정체는 그 다음 문제이고 한족종족주의도 그 다음 문제이다. 유럽의 강대국이 입헌을 통해 현재의 국력을 성취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헌을 주장하던 그는, “혁명은 공화로 이어지기는커녕 전제를 부르며” “중국에서는 공화나 군주입헌보다, 개명전제가 좋다”라고 말을 바꾼다. 그는 「개명전제론」에서 “상층사회의 부를 빼앗아 하층사회에게 나눠주자는” 민생주의는 “상층사회의 적대”를 불러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⁶⁵⁾ 개명전제론을 주장한 데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가 배경에 있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양계초의 불편함은 1903년 미국여행에서 시작되었다. 뉴욕의 빈민가를 본 그는 빈부격차에 충격을 받고, “재산분배의 불균형은 여기에서 극에 달했다. 우리는 뉴욕의 빈민굴을 보고 사회주의를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깊이 통탄한다”⁶⁶⁾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의 필요에 대한 공감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노동자는 기계처럼 부품화되어 한 가지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가는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산가는 점점 영리해져간다고 이해한 그는, 근세 세계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더욱 어리석어지고 똑똑한 사람은 더욱 똑똑해지는 세상이라고 비판한다. 근대문명이 이상으로 하는 “교육보급이라는 한마디는 빈말이다. 아야! 천하의 대세는 결국 도도하게 날로 전제로 돌아간다.”⁶⁷⁾는 것이 세태파악의 결말이었다. 그는 이전에 러시아허무당을 논하면서 “근세의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평등한 사회

65) 飲氷, 『신민총보』 제75호(1906.02.23), 「開明專制論」, p. 11.

66) 『新大陸遊記節錄』(1904.02) 『飲氷室專集』(林志均 편(1932), 『飲氷室合集』, 上海: 中華書局, 1932 수록) 권22, p. 39 이하林志均 편(1932), 『飲氷室合集』에서 인용하는 경우, 각각 『專集』 『文集』으로 표기함.

67) 『新大陸遊記節錄』(1904.02), 『專集』 권22, pp. 40-41.

의 이상을 목적으로 삼지만, 그 이상에 이르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가장 독재적인 집권이 될 것이다”⁶⁸⁾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나,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산의 공유화는 인지상정 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독재만이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양계초는 당대의 누구보다도 유럽 근대문명에 빨리 반응했고, 중국이 놓인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자 분투했다. 그리하여 사회진화론의 세상에서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이 중국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전제가 중국이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적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전제를 주장한다. 개명전제는 전제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명적인 전제라고 설명된다.⁶⁹⁾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개명전제 군주의 조건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心術)”⁷⁰⁾을 함양하는 것이었다. 즉 ‘도덕’적 수양이었다.⁷¹⁾

정치의 자격으로 도덕을 요구하는 이 구조는 오래된 유학의 전통이다. 도덕적인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양계초는 놓은 적이 없다. 가장 급진적인 시기에 연재를 시작했다고 하는 『신민설』조차도 근대국민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공덕’(公德)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었다.⁷²⁾ 그에게 혁명과 공화란 검증되지 않은 주체들이 정치에 난입하는 것이었다. 그가 혁명을 ‘자연적인 파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보여준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의도도 없고 기획도 없는 자연적인 소란에 불

68) 中國之新民, 『신민총보』 제40·41합호(1903.11.02), 『論俄羅斯虛無黨』, p. 74.

69) 飲氷, 『신민총보』 제73호(1906.01.25), 『開明專制論』, pp. 10-14.

70) 『청의보』 제93책(1901.10.03), 『飲氷室自由書·維新圖說』.

71) 개명전제와 도덕적 수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혜경(2002), 『천하관과 근대화론—양계초를 중심으로』,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제8장 참조.

72) 양계초 지음, 이혜경 주해(2014), 『해제』 참조.

과하다. 이 윤리-정치 체계는 성과가 아니라 마음씀을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정적을 비난할 때도 정적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그 잘못된 마음을 비난한다. 즉 정적의 죄명은 늘 위선이거나 부도덕함이다.⁷³⁾ 양계초가 구국이라는 자신의 신념에 헌신하고, 또 그 속에서 정적인 혁명파를 비판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학자의 모습이다. 도덕적 자격을 가진 전제군주의 권력 강화를 주장하는 것 역시 일관성 있는 자세이다.

중국의 “국민은 공화국의 국민이 될 능력이 없다”며 공화를 유보해야 한다는 양계초는 “공화정치는 법학박사학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혁명파가 주장하듯이 “특별한 속성법”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⁷⁴⁾ 민주정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다음의 논평은 단발의 실언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4년마다 새로 뽑는다면 4년마다 전국에 한차례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3년 혹은 5년마다 선거를 한다면 3년이나 5년마다 한차례 대혁명이 일어난다. …… 사람들이 난을 좋아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어서 자연적 폭동이 연이어 일어나면 정부의 한정된 군대로는 진압할 수 없을 것이다.⁷⁵⁾

중국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의미로 ‘혁명’을 사용했다는 양계초는 지금 명백하게 ‘역성혁명’의 의미로 ‘혁명’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혁명파의 ‘혁명’만 역성혁명이 아니라, 진화의 선단이라는 민주제의 대통령 교체도 역성혁명인 것이다.

혁명을 근본적으로 진화의 맥락에서 받아들인 것은 혁명파도 마찬가지였다. 추용의 『혁명군』은 “혁명은 진화의 공레이며” “혁명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며 노예를 그치고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그 시대의 인

73) 도덕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체제로서 유학이 위선자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경(2011), 「향원을 향한 유가윤리의 비판은 정당한가?」 『철학사상』 39 참조.

74) 飲水, 『신민총보』 제75호(1906.02.23), 『開明專制論』, pp. 42-42.

75) 飲水, 『신민총보』 제82호(1906.07.06), 『暴動與外國干涉』 p. 26.

식을 같이 했다. 『절강조』에는 “적자생존은 공레이며 …… 적자생존하지 않으면 그 민족은 망한다”고도 표현되었다.⁷⁶⁾

그런데 혁명과 역시 이러한 진화의 맥락에서만 ‘혁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혁명파가 만주정부의 전복을 촉구하며 펼친 논리는 과거의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혁명파가 ‘종족혁명’의 구호를 ‘민족’의 구호로 바꾼 것은 ‘민족’이 근대적인 용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족을 핍박하는 청정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논리를 세우기도 했지만, 은연중에 한족의 관습적 우월주의를 드러내곤 했다. 1895년 홍콩홍중회 창립 때의 구호부터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1903년의 시점에서 장병린은 “지금 저 만주는 한인에게 귀화했는가, 한인을 능멸하고 제압했는가? …… 만약 같은 종족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만주인을 한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인을 만주족으로 만드는 것”⁷⁷⁾이라고 분노했다. 만주가 한인에게 귀화했다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2년 뒤, 『민보』에서도 만주족을 무시하는 정서는 은폐되지 않는다. 『민보』 창간호에서 『민족의 국가』라는 제목의 글은 “민족주의에서 만인을 배척하고 국민주의에서 열악한 정부를 배척”한다고 ‘근대적’ 수사를 사용하기는 한다. 그러나 “동화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민족이 주인의 자리에서 타민족을 흡수해야 한다. 나는 우리 민족주의를 실행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한다.⁷⁸⁾ 이들에게는 무엇이든 하려 한다면 한족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데는,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한족만이 입헌이 가능”하므로 종족혁명은 필연적이라고 태연히 말한다.⁷⁹⁾

76) 大我, 『浙江潮』 제8기(1903.10.10), 『新社會的理論』.

77) 장병린(1903.5), 『太炎文錄初編』, 文錄卷2, 『駁康有爲論革命書』(『章太炎全集』(1982) 제4책 수록. 上海: 人民出版社).

78) 精衛, 『민보』 제1호(1905.11.26), 『民族的國家』.

양계초는 청정부를 “망국의 원수”라고 부르며 중국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듯한 혁명파가 또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모순이라고, 그 막무가내의 한족중화주의를 지적한 적이 있다. “중국국민”임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만주정부”라고 부르는 것 역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현존하는 유일한 중국정부는 무시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었다.⁸⁰⁾ 신해혁명 뒤, 그리고 5·4운동 뒤, 손문은 민족주의와 중화주의를 재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는 외국에 대해 독립을 지키는 것, 중화민족주의는 만(滿)·몽(蒙)·회(回)·장(藏)족이 한족에 동화되는 것으로 수정된다.⁸¹⁾ 여전히 한족중심주의가 유지되지만, 그래도 이전의 민족혁명이 비판의 혐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것이다.⁸²⁾

6. 맺는말

가치로서 받아들여진 사회진화론은 중국인의 인생에 불협화음을 낳았다. 특히 양계초는 강해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도덕적인 사람이고자 했다. 자유로운 사람이고자 하면서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불협화음은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중국인 전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기심의 절제와 공공을 위한 공덕을 요구하면서, 외국은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대해야 했다. 실제로 그것은 순조롭게 강자가 된 유럽의 나라에서는 양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79) 蟄伸, 『민보』 제1호(1905.11.26) 「論滿政府雖欲立憲而不能」.

80) 飮氷, 『신민총보』 제84호(1906.08.04), 「雜答某報」.

81) 전동현(2005), 『두 중국의 기원』, 서해문집.

82) 김형중(2001), 「청말 혁명파의 ‘반만’혁명론과 ‘오족’공화론」, 『중국현대사연구』 제12집은 반만혁명과 관련하여 손문과 동맹회 혁명론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과거의 유학체계에서는 개인의 도덕이 추구하는 것은 ‘천하’라는, 그들이 인지하는 존재 전체의 평화였다.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천하의 평화가 양립하는 도덕적 세계였다. 과거에 천하라는 이름으로 불렸어도 실제로는 중국이었으므로, 지금 중국에 대한 헌신이 현실적으로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양계초가 자신이 처한 불협화음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과거의 유학자가 그랬듯이 정치, 학문, 도덕 영역에서의 일신(日新)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가고자 한다. 중국을 위한 헌신이라는 실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인생의 목표 설정은 양계초에게 여전히 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당한 것이었다.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기준, 자유를 이해하는 기준, 국권과 민권을 이해하는 기준이 모두 이것, 즉 중국의 평화와 영화였다.

그러나 중국의 평화는 과거와 같은 노력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과거에는 나의 도덕수양에 힘쓰는 단일한 방식에 의해 성취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외부와의 전투를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함께 부과되었다. 즉 열국의 하나로 축소된 중국을 둘러싼 세계와 대결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다. 그것은 과거의 방식을 통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양계초는 중국 내에서의 경영은 과거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을 그것과 접합시키려고 했다.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못하는 가치관의 병렬이었다. 승리한 전쟁이 ‘민덕’을 고양한다는 양계초의 수사는 국내와 대외 사이의 불협화음을 그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혁명 역시 진화와 국가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불사하고 이겨야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도덕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했다. 혁명은 최종적으로 국내의 전쟁, 즉 내란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적인 욕망에 의한 야만적 폭력으로 폄하되었다. 이러한 혁명은 진화의 반동이었다. 양계초는 국내의 혁명세력을 향해서는 예전의 유학자들이 정적을 비난하듯이 그

들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혁명에 대한 부정적 판정과 더불어 고전적 ‘혁명’의 의미인 ‘역성혁명’의 의미 또한 자연스럽게 부활한다. 혁명파의 만주족 배척의 근거에는 중원을 오랑캐에게 내준 한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욕망이 노골적으로 놓여있었다. 사심 없이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는 떳떳함이 양계초를 지탱하는 힘이었다면, 혁명파에게는 한족종족주의가 이들을 분발하게 하는 힘이였다.⁸³⁾ 진화의 맥락에서 받아들였기에 긍정적으로 사용되던 양계초의 초기 ‘혁명’ 개념은 부정당하면서 그 ‘진화’의 의미를 박탈당한다. 즉 양계초는 ‘혁명’을 자신이 이전에 ‘야만’ 시대의 것이라고 비판했던 중국의 역성혁명과 같은 함의로 사용하며 배척한다. ‘민권’, ‘민생’을 지향하는 혁명파의 혁명의지와는 달리 ‘민족’의 구호에는 역성혁명의 혐의가 없지 않았다. ‘혁명’이 ‘revolution’을 번역하기 위한 신조어가 아닌 이상, 혁명에 담겨있는 이들의 역사와 문화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83) 朱滋源(1985), p. 336은 삼민주의 가운데 민족혁명론이 농후한 감성적 성격으로 청말 인민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호소력이 있었으며 효과도 가장 컸다고 평한다.

참고문헌

【자 료】

『清議報』.

『新民叢報』.

林志均 편(1932), 『飲氷室合集』, 上海: 中華書局, 1932.

『章太炎全集』(1982), 上海: 人民出版社.

양계초 지음, 이혜경 주해(2014), 『신민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태평양객 외 지음, 성근제 외 옮김(2011), 『20세기초 반청 혁명운동 자료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新小説』, 『民報』, 『江蘇』, 『蘇報』, 『浙江潮』.

【논 저】

金觀濤·劉青峰(2008), 『概念史研究: 中國現代重要政治術語的形戒』, 양일모 외
번역(2010), 『관념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김형중(2001), 『청말 혁명파의 ‘반만’혁명론과 ‘오족’공화론』, 『중국현대사연구』
제12집.

김태관·권혁권(2009), 『梁啓超의 “소설계혁명” 이론이 중국의 근대소설에 미친
영향분석』, 『中文學』 제32집.

민정기(1993), 『晚淸 詩界革命과 梁啓超의 詩界革命論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11), 『향원을 향한 유가윤리의 비판은 정당한가?』, 『철학사상』 39.

_____(2002), 『천하관과 근대화론—양계초를 중심으로』,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전동현(2005), 『두 중국의 기원』, 서울: 서해문집.

山實信一(2005), 정재정 옮김(2010),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으로 보는 일
본과 세계』, 서울: 도서출판소화, 2010.

元冰峰(1980), 『清末革命與君憲的論爭』,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楊天石·王學庄 편(1979), 『拒俄運動: 1901-1905』,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丁文江·趙豐田(1983), 『梁啓超年譜長篇』, 上海: 人民出版社.

- 李國俊(1986), 『梁啓超著述系年』,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張朋園(1979), 『梁啓超與清季革命』,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朱滋源(1985), 『同盟會的革命理論』,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周佳榮(1979), 『蘇報與清末政治思潮』, 香港: 昭明出版社.
陳建華(2000), 『革命的現代性－中國革命話語考論』, 上海: 古籍出版社.

Peter Calvert(1990),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김동택 옮김(2002), 『혁명』,
서울: 도서출판.

원고 접수일: 2015년 3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5년 4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일

ABSTRACT

Liang Qichao's Conversion in the Concept of "Revolution"

- Around the Period of *Qingyibao* and *Xinmincongbao*

Yi Hyegyung*

This paper examines how Liang Qichao, who had a leading role as an enlightenment thinker, changed the implication of the concept of "revolution" around the time of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Though Liang Qichao, as a "Constitutionalist", was in conflict with the "Revolutionaries," he was the first person in China to adopt "revolution", a translated term, with its modern meaning.

With the understanding of "revolution" as a concept similar to "evolution", he used the term quite affirmatively up to a certain time. However, through confrontation with the revolutionaries while witnessing the reality of the Russian Revolution, he organized his negative position towards revolution.

Social evolution was regarded as a framework to recognize the reality that people had to uplif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an institution to recognize the moral value that they had to control self-indulgence and contribute to the country.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riticism of revol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in which Liang Qichao accepted social evolution.

Domestically, “revolution” was regarded as a private ambition towards power by amoral people who needed to devote themselves to the country;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with foreign countries, it was criticized as a riot that eroded national competitiveness.

It was considered not different from dynastic revolutions which had been forced by selfishness without any consideration to the nation and its people. “Revolution”, which had been affirmed as evolution, was negated as a “barbaric” takeover against evolution.